

# 도금양나무(*Myrtus communis*)의 명칭문제 고찰

김영숙\* · 안계복\*\*

\*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경전공

## An Investigation on the Problem in the Local Names of *Myrtus communis*

Kim, Young-Sook\* · Ahn, Gye-Bog\*\*

\*The graduate school, Daegu Catholic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aegu Catholic University

### ABSTRACT

The following summarizes the findings from an analysis of literature and 21 versions of the Bible published in Korea, China, and Japan to discuss the name of *Myrtus communis*. *Myrtus communis* was an important tree symbolizing love and resurrection since the Ancient Mesopotamia, Egypt, Judas, Greece, Ancient Rome, and Medieval Spain. In the Bible, Myrtus (hádas) was used to make the booths at the Feast of Tabernacles or for various ceremonies. Myrtus symbolized the people of Israel and also symbolized peace, appreciation, indestructibility, and resurrection.

In the Bible of Korea, China, and Japan, Myrtus was translated into various names by time, such as ‘崗拈樹’, ‘千里香’, ‘鳥拈’, ‘番石榴’, ‘桃金孃’, Gamtangnamu, Seoglyunamu, Hwaseoglyu, Sogwinamu. ‘Myrtle’ was translated into ‘桃金孃’ based on Japan’s 『熟語本位 英和中辭典(1915)』, and it seems that the mistake was directly excerpted by the English-Korean Dictionary(1949) after the Liberation. According to the theory of ‘Dynamic Equivalence’ in translation, it would be best to use ‘Myrtus’ was the official name of *Myrtus communis*.

*Key words:* Bible, myrtle(Myrtus), Hwaseoglyu, Cheonlihyang, Cheoninhwa

### 국문초록

‘도금양(천인화)나무’의 명칭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 문헌분석과 한중일 21종의 성경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르투스(*Myrtus communis*)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유다, 그리스, 고대 로마, 중세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부활을 상징하는 중요한 수목이었다. 성경에서 미르투스(מִרְתֻּסָּה hádas)는 초막절에 초막을 만드는데 사용되거나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할 때 사용되던 중요한 나무다. 미르투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이고, 평화와 감사의 상징이기도하며, 또한 불멸성과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로 나타난다.

한중일 성경에서 미르투스는 시기별로 崗拈樹(千里香), 千里香, 鳥拈, 番石榴, 감탕나무, 석류나무, 화석류, 소귀나무, 도금양나무 등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myrtle을 桃金孃으로 번역하는 것은 일본의 사전 『熟語本位 英和中辭典(1915)』과 전문서적 『聖書植物考(1920)』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후 『영한사전(1949)』이 출간되면서 일본 서적을 여과 없이 그대로 인용되던 탓에 나타난 오류다.

일본에서는 *Myrtus communis*라는 식물이 없기 때문에 이 수목을 쓸 때에는 ‘桃金孃’이라고 쓰고 입을 때에는 ‘てんにんくわ(天人花)’로 읽었다. 따라서 “천인화(텐닌카)”는 “도금양”의 또 다른 일본식 번역인 셈이다. 따라서 스페인 알함브라궁의 알베르카(Alberca) 중정을 ‘천인화의 중정’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완전한 오류다. 마찬가지로 ‘도금양의 중정’도 일본식 번역이기 때문에 한국의 서적에서는 완전히 사라져야 할 용어라고 판단된다.

번역에 관한 내용동등성 이론에 의하면 미르투스(מִרְתֻּסָּה hádas)는 히브리어인 hádas를 사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학명인 미르투스(*Myrtus*)를 사용하는 방안도 있고, 한국의 수목 가운데 미르투스와 가장 가까운 서향을 사용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hádas는 한국사람들에게 의미 전달성이 약한 약점이 있고, 서향은 미르투스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전달성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명인 미르투스(*Myrtus*)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성경, 도금양(桃金孃), 화석류, 천리향, 천인화

† **Corresponding Author** : Ahn, Gye-Bo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aegu Catholic University, Gyeongsan-si, Gyeongbuk, 38430 Korea, Tel.: +82-53-850-3190, E-mail: gbahn@cu.ac.kr

## I. 서론

사람을 비롯하여 동식물, 광물 등 수많은 사물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명칭이 필요하다. 이러한 올바른 명칭에 대해서는 일찍이 정약용이 아연각비에서 논한 바가 있다.

서양조경사에서 도금양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그런데 조경 전문 서적에서는 도금양나무[1][2][3]로 소개되기도 하고, 천인화[4][5]로 소개 되어 두 식물이 동일한 수목인지 차이가 있는 식물인지 혼란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동일한 수목이라면 왜 한자어로 '도금양'과 '천인화'라는 두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하기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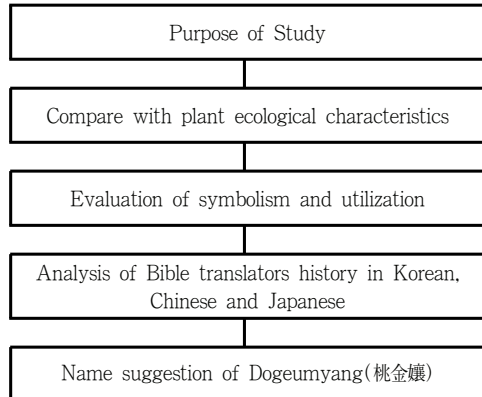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서양조경사 전문 서적들에서 도금양나무(천인화)에 대해서 그리스, 고대 로마, 그리고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스시대 신들에게 특별한 수목을 바쳤는데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비너스)에게 장미와 도금양을 바친 것으로 되어있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정원식물 가운데 관목으로 주로 심긴 나무는 회양목과 도금양나무인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스페인 알함브라궁의 알베르카(Alberca) 중정은 도금양나무가 열식되어 있다고 하여 '도금양나무(천인화)의 중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스페인 알함브라궁을 답사해서 직접 도금양나무를 보더라도 그저 회양목이나 팡팡나무와 비슷한 수목 정도로 여길 뿐이다. 그래서 서양조경사를 강의하는 사람들은 모두 도금양나무와 천인화를 어떻게 구분해서 설명해야 하는지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도금양나무(천인화)는 학명으로 *Myrtus communis*인데 어떻게 하여 도금양, 혹은 천인화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올바른 명칭을 붙인다면 어떻게 붙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도금양나무에 대해서 공식적인 연구논문은 없지만 이창복(1979)의 서적에서 도금양을 소개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만 하다.

## II. 연구방법

도금양나무(*Myrtus communis*)의 명칭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 3단계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1단계로 도금양나무와 유사종에 대한 식물생태학적인 특성 분석을 통해 유사종을 구분하기 위한 근거를 찾았다. 2단계로 문헌조사를 통해서 도금양나무가 고대 국가별로 가지고 있었던 상징성과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3단계로 도금양나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나무이기 때문에 한중일 성경 번역 역사에 나타난 도금양의 명칭 변화에 대한 분석을 해 봄으로써 도금양나무의 올바른 명칭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Table 1. Flow chart of the Study



이를 위해 중국성경은 시기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馬禮遜·米憐譯『神天聖書(1823)』[6], 四人小組譯本『舊遺詔全書(1840)』[7], 裨治文·克陸存譯『舊新約全書(1863)』[8], 施約瑟譯『天主版舊約全書(1874)』[9], 文理和合譯本『新舊約全書(1919)』[10], 和合本『舊新約全書(1959)』[11], 思高譯本『新舊約全書(1968)』[12], 『現代中文譯本 聖經(1995)』[13] 등 8종의 성경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일본 성경은 裨治文克陸存譯의 『舊約全書(漢譯聖書 1863)』[14], 『訓点舊約全書(1885)』[15], 明治元譯 『旧新約聖書(1904)』[16], 口語譯 『旧約聖書(1955)』[17], 新共同譯 『聖書(1987)』[18] 5종의 성경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한국의 성경은 『성경전서(1911)』[19], 『鮮漢文 貫珠 聖經全書(1926)』[20],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38)』[21], 『공동번역 성서(1977)』[22], 『성경전서 표준새번역(1993)』[23],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24],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1999)』[25], 『성경(2005)』[26], 8종의 성경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미르투스(*Myrtus communis*)의 식물생태학적인 특징과 유사종

桃金娘科(Myrtaceae)<sup>4)</sup>는 교목 또는 관목으로 잎은 단순하며 정유(精油)가 들어 있는 유점(油點)이 있다. 75속(屬) 3,000여종(種)으로 이루어지며, 유칼립투스과 도금양 등 경제적으로 중요한 식물이 많이 있으나 한국에는 자생종이 없다.

미르투스(*Myrtus communis*)는 일반적으로 상록관목 군락 형태로 자라는데 약 4.5m까지 자란다. 여름에 흰색 꽃이 피는데, 가을에는 블루베리처럼 생긴 작고 검은 남색 열매가 달린다. 열매는 식용하지 않지만, 새들의 먹이가 된다[27]. 잎은 3~5cm로 짙은 녹색의 난상피침형(卵狀披針形)으로 가장자

Table2. Compare with Plant ecological characteristics

	Myrtus	Dogeumyang	Sogwinamu	Beonseoglyu	Seohyang (cheonlihyang)	Gartangnamu
Scientific name	<i>Myrtus communis</i>	<i>Rhodomyrtus tomentosa</i>	<i>Myrica rubra</i>	<i>Psidium guajava</i>	<i>Daphne odora</i>	<i>Ilex integra</i>
Type	Broadleaf Evergreen shrub	Broadleaf Evergreen Shrub	Broadleaf Evergreen tree	Medium-sized evergreen tree	Evergreen Shrub	Medium-sized evergreen tree
Flower color	White with yellow-tipped stamens	White on the outside with purplish-pink	Dark red	White	Pale-pink	Light yellow
Fruit	Blue-black berrie	Berries	Stone-fruit	Pear-shaped berry	Red berries	Stone-fruit
Native Range	Mediterranean southwestern Europe	Southeast Asia	East Asia Mt. Hanlla	Tropical America	China and Japan	East Asia
Specificity	Fragrance, Oil				Flower scent	

리가 밋밋하고 대생(對生 마주나기)하면서 불규칙한 운생을 한다[28]. 또한 잎은 증발에 의한 수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밀랍 표피로 덮여 가죽같은 촉감을 가지며 뻗뻗하지만 치밀하게 밀생한 잎은 보는 사람들에게 녹색과 신선함을 준다. 그뿐만 아니라 기분 좋은 냄새를 가진 휘발성 오일 향기가 있다. 실제로 이 향기로운 오일은 나무를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수분증발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열매에도 향기가 있어 향료로 활용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고대로부터 좋은 상징성을 가지게 되었다[29]. 미르투스(*Myrtus communis*)는 팔레스타인, 레바논, 베들레헴, 헤브론, 카르멜산, 타보르산에 자생하는데 향기가 있는 상록관목이다. 미르투스(*Myrtus communis*)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키드론 계곡과 레바논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돌이 많은 땅에서 잘 자란다. 미르투스(*Myrtus communis*)는 가지가 많이 갈라지기 때문에 흔히 생울타리나무로 가꾼다. 향료에 쓰이는 향유가 이 식물 거의 전체에 들어 있다. 술, 음식물의 부향제로 쓰다가 하면 방부와 진통의 약효도 있어서 약으로도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도 없는 식물이다.

미르투스(*Myrtus Communis*)와 혼동된 식물로는 「공동번역 성서」(1977)에서 번역한 적이 있는 ‘소귀나무’가 있다. 소귀나무(*Myrica rubra*)는 소귀나무과의 상록교목으로 한국, 일본, 중국, 대만에 분포하는 나무이다. 소귀나무는 8-15m 정도 자라는 자웅이주(암수딴그루) 교목로서 미르투스와 학명과 성상이 완전히 다른 수종이다.

중국성경(現代中文聖經 1995)에서는 미르투스를 ‘번석류’로도 번역한 적이 있는데, 번석류(番石榴 *Psidium guajava*)는 桃金娘科(Myrtaceae)의 식물이지만 구아바로 알려진 식물이다. 번석류[30]는 소교목으로 13m까지 자라며, 잎은 6-12cm 내외로 타원형이며 광택이 있다. 그러나 번석류는 수피가 배롱나무처럼 매끈한 녹색이며, 열매는 과일로 식용하는데, 직경이 3-8cm 내외로 일년에 두 번 수확하는 점이 미르투스와 다른 점이다.

중국성경(新舊遺詔全書 1840, 舊新約全書 1863)에서는 미르투스를 ‘千里香(천리향)’ 혹은 ‘崗拈樹(강념수 千里香)’으로 번역하였다. 일본성경(訓点舊約全書 1885)에서도 ‘崗拈樹(千里香)’으로 번역하였다. 천리향(千里香)은 우리나라에서 서향(*Daphne odora*)으로 수목도감[31]에 나온다. 서향(천리향)은 미르투스와 잎의 모양이 비슷한 상록관목이지만 꽃이 두상화서로 개화하기 때문에 다른 수종이다.

일본성경(明治元譯 旧新約聖書 1904)에서는 미르투스를 ‘모치노키(もちのき 감탕나무)’로 번역한 적이 있는데, 감탕나무(*Ilex integra*)[32]는 상록소교목으로서 수고가 10m에 달하고, 잎은 호생(어긋나기)로 달리고 타원형에 가까운데, 길이는 5-10cm이고 잎 표면은 짙은 녹색으로 광택이 있다. 감탕나무와 미르투스의 차이점은 학명과 수고, 잎의 크기 등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는 수종이다.

일본에서는 미르투스를 ‘도금양=천인화(てんにんくわ 天人花 *Rhodomyrtus tomentosa*)’[33]라고도 번역 하었는데, 영명은 Rose myrtle, Downy myrtle이다. 천인화는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 분포하고 있는데 잎은 긴타원형이다. 그러나 천인화는 잎의 뒷면에 흰색 털로 덮여 있고, 습지에서 잘 자라며 담홍색의 꽃을 피우는 점이 미르투스와 다른 점이다. 한편 일본에서 2006년에 발간된 성서식물대사전[34]에는 미르투스를 은매화(ギンバイカ)로 번역하였지만 성서번역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 2. 미르투스(*Myrtus communis*)의 국가별 활용과 상징성

### 1) 고대 메소포타미아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서사시 길가메쉬 서사시에서는 대홍수 이후에 갈대와 소나무 그리고 미르투스(myrtle)로 제단을 쌓았다[35]는 내용이 있다.

2) 이집트

고대 이집트에서도 이 나무는 사랑과 환희의 상징으로서 사랑과 기쁨의 여신에게 바쳤다. 그래서 고대신화에는 미르투스(myrtle)에 얽힌 전설이 있다[36].

3) 유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미르투스(*Myrtus communis*)은 출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동반한다. 많은 유다 공동체에서는 아기가 태어난 뒤 침대, 할레(brit milah) 때 사용되는 쿠션, 또는 Pidyon HaBen<sup>1)</sup> 의식을 장식하는 데 미르투스(*Myrtus communis*)을 사용하였다. 꺾이면 바로 시들어 버리는 버드나무 가지와 달리, 미르투스는 가지를 꺾어도 2~3일 정도는 싱싱하게 살아 있는 나무다. 시들어 버렸다고 할지라도 물에 꽂으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불멸과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나무를 불사의 표징으로 죽음과 부활의 약속으로 삼았다.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갈 때에는 반드시 가지고 갔을 정도로 이 나무를 중요시하였던 나무다.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하는 신부의 머리에 쓰는 화관의 재료로 미르투스 가지를 사용한다. 특별히 “잎이 많은 나무”로 번역된 “הדס hadas”는 유대인들에게 성공을 상징하기 때문에 새로 개업한 가게 등을 처음으로 방문할 때 선물로 가져가는 유대인들의 풍습이 있다.

3) 그리스

그리스에서 미르투스(*Myrtus communis*)은 사랑과 미의 상징으로 여겼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프로디테(로마신화의 비너스)를 나타내는 나무이거나, 혹은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졌던 나무로 전해지고 있다[37]. 그리스에서는 영웅에게 숭배하는 뜻으로 미르투스로 만든 관을 씌워주었지만 나중에 월계관으로 발전하였다.

4) 고대 로마

고대 로마인의 정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폼페이 유적의 벽화에 비너스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 미르투스(*Myrtus communis*) 생울타리가 그려져 있다. 미르투스는 비너스 신전 주변에 여신의 힘과 상징으로 심었다[38].

5) 스페인

스페인을 대표하는 중세 알함브라궁전의 첫 번째 중정(Patio de los Arrayanes)에 미르투스(*Myrtus communis*)를 심고 도금양의 중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항상 의문이었다. 그런데 현재 스페인에서는 미르투스를 아라야네스(Arrayanes)라고 부르는데 정원과 공원에 생울타리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식물이다[39]. 또한 스페인 요리에서 고기를 구울 때 사용되는 재료

일 뿐만 아니라, 방부제, 수렴제, 방취제, 거담제, 진정제, 에센셜 오일[40]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3. 성경[41]에 나타난 도금양(*Myrtus communis*)<sup>2)</sup>의 상징성

유대인들은 향기로운 도금양(*Myrtus communis*) 가지를 다른 나무 가지와 함께 초막절 축제 기간에 사용하는 초막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다(느헤 8,15). 유배에서 귀환을 예고하는 이사야의 예언에서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도금양나무가 췌기풀을 대신하여 자라고 또 광야에서도 자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이사 41,19; 55,13). 즈카르야가 본 환시 중에도 도금양이 나온다(즈카 1,8). 유대인들은 이 나무를 평화와 감사의 상징으로도 여겼으며, 저주받은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식물로 생각했다(이사 55,13)

성경에서 도금양(*Myrtus communis*)은 유배와 유배가 끝난 후의 글에서만 언급된다(이사 41,19; 55,13; 즈카 1,8. 10. 11; 느헤 8,15). 유배를 거치면서 망가진 하느님 백성의 땅 광야에 아름답고 유용한 나무가 심겨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도금양은 초막절의 축제에 사용되는데(느헤 8,15), 레위 23,40에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고 무성한 나무의 줄기라고 나오지만 탈무드의 현자는 그 가지가 연중 조밀하게 잎이 덮여 있기 때문에, 도금양을 “잎이 많은 나무”로 판단하였다. 도금양은 무성하며 줄기가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다. 도금양은 불에 탔을 때에 다른 나무와 다르게 가장 빨리 한 가지에서 세 가지의 결가지를 내는 뛰어난 재생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기도 하다. 그래서 랍비들은 도금양을 불멸성과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로 이야기한다.<sup>5)</sup>

즈카 1,8의 도금양(*Myrtus communis*) 사이에서 있던 사람에서 도금양은 상록수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다. 주석가[42]들은 계곡의 도금양나무가 자기를 낮추는 하느님의 사람들, 유대인을 상징한다고 본다. 그들은 산 정상에 있는 위엄 있는 향백나무가 아니라, 이방인 지배하에 있는 계곡의 겸손한 도금양이다. 도금양은 상록수로 열매와 잎, 그리고 꽃에서 향기로운 향기를 발산한다.

4. 도금양(*Myrtus communis*)의 번역상 혼란성과 제언

1) 도금양(桃金孃) 단어의 유래

미르투스(*Myrtus Communis*)는 동아시아에서는 자라지 않는 식물이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할 때 소귀나무, 番石榴, 烏拈, 崗拈樹(千里香), 도금양, 화석류 등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번역되었다.

中國科學院의 화남식물원 자료[43]에 의하면 미르투스를 桃金孃(도금양)나무로 번역하면서 도금양의 유래가 “逃軍糧(도

군량)에서 왔다고 설명한다. 즉 일명 倒捻子(도임자), 崗捻子(강임자), 都捻子(도임자), 山捻(산임), 崗捻(강임) 이라고도 한다. 桃金娘은 여름에 담홍색 꽃이 피며, 열매는 앵두처럼 생긴 것이 어두운 자주색으로 익는다. 오래 전에, 백성들이 통치자의 폭정과 강제 징용을 피해 산으로 잇달아 피해 갔는데 가진 식량이 많지 않아 굶주리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길이와 생김새가 석류나무 같고 앵두와 같은 크기의 과실(長著形似石榴而和櫻桃般大小的果實)도 많고 검붉은 색의 감미로운 열매로 허기를 채웠다. 산에서 지내다 무사히 산을 내려와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 식물을 “逃軍糧(도군량)”으로 불렀는데, 이것을 음을 따서 좋게 변화시킨 것이 桃金娘(도금양) 혹은 桃金娘(도금양)이라 하였다. 그러나 中國植物志[44]에 의하면 桃金娘(*Rhodomyrtus tomentosa*)과 미르투스(도금양)는 다른 나무로 나타난다. 中國植物志에 의하면 미르투스(*Myrtus communis*)는 香桃木(향도목)으로도 소개하고 있다.

‘myrtle’라는 단어가 ‘桃金娘’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연도를 찾아보면, 일본에서 1915년에 출간된 「熟語本位 英和中辭典[45]」이 가장 빠르다. 그 이후 1920년에 출판되고 1975년에 재판된 일본의 「聖書植物考[46]」라는 서적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사전과 전문서적에서는 그 근거를 제대로 다 밝히지 않고 “도금양”이라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최초의 영한사전은 1890년 언더우드(Underwood H. G.) 발간한 「한영사전」이지만, 이 사전에는 “myrtle”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해방이후 일본의 「英和辭典」을 바탕으로 1949년에 영한사전[47]이 출판되었는데, 이 사전에서 “myrtle”을 “桃金娘”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의식 없이 “myrtle”를 일본식으로 ‘桃金娘’이라고 번역한 사전이나, 혹은 일본 전문서적의 영향을 받아서 ‘桃金娘’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천인화는 「聖書植物考(1920)」에 의하면 ‘桃金娘’이라고 쓰고 후리가나로 ‘てんにんくわ’라고 병기하고 있는 것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일본 국어 사전인 「廣辭苑(1955)[48]」에 의하면 ‘てんにんくわ’의 현대어가 ‘てんにんか’임을 알 수 있는데, ‘てんにんか’를 한자어로 쓰면 天人花(천인화)가 된다. 일본의 天人花(천인화)는 오키나와에 자생하는 담홍색의 꽃이 피는 *Rhodomyrtus tomentosa*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본에서는 *Myrtus communis*라는 식물이 없기 때문에 이 수목을 지칭할 때 ‘桃金娘’이라고 쓰고, ‘てんにんくわ(텐닌쿠와 天人花)’로 읽었던 것이다. 따라서 “천인화”는 “도금양”의 또 다른 일본식 번역인 셈이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Myrtus communis*(도금양)과 *Rhodomyrtus tomentosa*(천인화)는 엄연히 다른 곳에서 자생하는 전혀 다른 수목이기 때문에 이 두 수목을 동일하게 판단

하거나, 혹은 스페인 알함브라궁의 알베르카(Alberca) 중정은 ‘천인화의 중정’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완전한 오류가 된다. 또한 도금양과 천인화는 일본식 번역이기 때문에 한국의 서적에서는 완전히 사라져야 할 용어다.

## 2) 문제해결을 위한 성경 분석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미르투스(*Myrtus*)는 고대부터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수목이다. 특히 성경에서는 불멸과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로 유대인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수목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의 명칭이 어떻게 번역되어 왔는지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한국 성경번역에 영향을 준 선대 성서들을 살펴보고 그 번역본들을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어 성경은 한국과 일본의 성경 번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시기별로 번역본들의 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미르투스(*Myrtus*)’는 동아시아지방에서 자생하지 않는 수목이기 때문에 자국의 수목 가운데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수목으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미르투스(*Myrtus*)의 정확한 번역 용어를 찾기 위해서는 시기별로 어떻게 번역해 왔는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미르투스(*Myrtus communis*)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מִרְטָא hádas는 느헤 8,15; 이사 41,19; 55,13; 즈카 1,8. 10-11에서 나온다. 이러한 히브리어를 기준으로 번역된 용어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성경의 馬禮遜·米麟譯「神天聖書(1823)」에서는 מִרְטָא hádas를 나뭇잎이 조밀하여 촘촘한 나무라는 뜻을 나타내는 稠密之樹(조밀지수)로 번역하거나, 米耳樹(mǐ ěr shù)로 의역을 하였다. 四人小組譯本「新舊遺詔全書(1840)」에서는 千里香(천리향)과 鳥拈(조념)으로 번역되다가, 裨治文·克陞存譯「舊新約全書(1863)」에서는 岡拈樹(강념수)를 쓰면서 ‘千里香’을 부기한 형태로 사용하였다. 「和合本 舊新約全書(1959)」에서는 番石榴(번석류)로 번역된다. 「思高譯本 聖經(1968)」에서는 桃金娘과 長春樹(장춘수)로 번역하여 ‘桃金娘’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 「現代中文譯本 聖經(1995)」에서는 番石榴(번석류)로 통일해서 쓰고 있다.

요약해 보면 중국성경은 미르투스(*Myrtus communis*)를 번역하는데 자국에서 자라고 있는 비슷한 나무인 千里香(*Murraya paniculata*), 鳥拈, 岡拈樹(千里香), 그리고 같은 도금양과(*Myrtaceae*)에 속하는 나무인 番石榴(*Psidium guajava*)를 쓰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 전달에는 한계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Translation of חָדָס hadas in Chinese Old Testament Bible

		Neh 8,15 חָדָס hadas	Isa 41,19 חָדָס	Isa 55,13 חָדָס	Zech 1,8 חָדָסִים hadassim
馬禮遜·米憐譯 神天聖書	1823	稠密之樹	米耳樹	米耳樹	米耳樹
四人小組譯本 舊遺詔聖書	1840	千里	鳥拈	千里香	X
裨治文·克陞存譯 舊新約全書	1863	岡拈樹(千里香)	岡拈樹	岡拈樹	岡拈樹
施約瑟譯 天主版舊約全書	1874	岡拈	岡拈	岡拈樹	岡拈樹
文理和合譯本 新舊約全書	1919	岡拈	岡拈木	岡拈	岡拈樹
和合本 舊新約全書	1959	番石榴	番石榴樹	番石榴	番石榴樹
思高譯本 新舊約全書	1968	長春樹	桃金娘	桃金娘	長春樹
現代中文譯本 聖經	1995	番石榴	番石榴	番石榴	番石榴

Table 4. Translation of חָדָס hadas in Japanese Old Testament Bible

		Neh 8,15 חָדָס hadas	Isa 41,19 חָדָס	Isa 55,13 חָדָס	Zech 1,8 חָדָסִים hadassim
裨治文·克陞存譯 舊新約全書(漢譯聖書)	1863	岡拈樹(千里香)	岡拈樹	岡拈樹	岡拈樹
訓點舊約全書	1885	岡拈樹(千里香)	岡拈樹	岡拈樹	岡拈樹
明治元譯 旧新約聖書	1904	もち 鳥拈	もちの樹	もちのき 岡拈樹	もちのき 鳥拈樹
口語譯 旧約聖書	1955	ミルトス	ミルトス	ミルトス	ミルトス
新共同譯 聖書	1987	ミルトス	ミルトス	ミルトス	ミルトス

Table 5. Translation of חָדָס hadas in Korean Old Testament Bible

		Neh 8,15 חָדָס hadas	Isa 41,19 חָדָס	Isa 55,13 חָדָס	Zech 1,8 חָדָסִים hadassim
Korean Bible	1911	석류나무	화석류	석류석	화석류나무
鮮漢文 貫珠 聖經全書	1926	石榴樹	花石榴	花石榴	花石榴樹
The Holy Bible Korean Revised Version	1938	화석류나무	화석류	화석류	화석류나무
The Holy Bible Common Translation	1977	소귀나무	소귀나무	소귀나무	소귀나무
The Holy Bible New Korean Standard Version	1993	소귀나무	화석류	화석류	화석류나무
The Holy Bible New Korean Revised Version	1998	화석류나무	화석류	화석류	화석류나무
The Holy Bible Common Translation Revised Ed.	1999	소귀나무	소귀나무	소귀나무	소귀나무
The Holy Bible	2005	도금양나무	도금양나무	도금양나무	도금양나무

일본성경의 경우, 중국의 성경인 裨治文·克陞存譯『舊新約全書(漢譯聖書 1863)』을 가져와서 岡拈樹(강념수 千里香)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훈점(訓點)을 달아 사용하였다. 자국에서 자라는 千里香(서향)이 가장 가까운 나무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明治元譯『旧新約聖書(1904)』에 와서는 岡拈樹과 鳥拈樹

를 함께 쓰면서 모치노키(もちのき 감탕나무)<sup>3)</sup>라고 부기해 놓았다. 그러나 미르투스(*Myrtus communis*)와 감탕나무(もちのき)는 전혀 다른 나무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口語譯 旧約聖書(1955)』에서부터 미루토스(ミルトス)로 번역하면서『新共同譯 聖書(1987)』에서도 미루토스(ミルトス)로 번역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성경의 경우 「성경전서(1911)」부터 「鮮漢文 貫珠 聖經 全書(1926)」,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38)」, 그리고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에 이르기까지 화석류, 화석류나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러나 화석류의 근거는 중국성경이나 일본성경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수목도 아니며, 사전이나 수목도감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우리나라 개신교 성서와 서적[49][50]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이다.

일설에 의하면 화석류(花石榴)라는 용어의 근거는 석류와 닮았다고 추정하여 붙인 이름이라고 하는데 미르투스(**מִרְטוּס** hádas)와 석류나무(**רִימּוֹן** rimmôn)는 완전히 다른 나무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옷술에도 석류 무늬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에도 그 모양을 새겨 넣었다. 이집트 왕의 무덤인 피라미트 벽화에도 석류그림이 나오며, 중국에서는 한나라 무제 장군이 실크로드를 따라 여행을 하다가 귀국할 때 들여왔다고 전해지는 나무다. 석류(石榴)라는 이름에 관해서 중국은 페르시아를 안석국(安石國)이라 불렀는데, 석류(石榴)는 “안석국(安石國)에서 자라는 나무”라는 뜻으로 안석류(安石榴)[51]라고 불렀다. 석류는 중국을 거쳐 삼국시대에 한국에 들어 왔으며, 신라와 고려 역사에도 등장하는 나무다.

「공동번역성서(1977)」에서는 미르투스와 전혀 다른 나무인 소귀나무로 번역되었다가, 「개역개정판(1998)」에서는 또다시 화석류로 변경되었으며, 가톨릭 「성경(2005)」에서는 도금양나무로 번역해서 쓰고 있다. 최근에 검색할 수 있는 NAVER 사전에서도 “myrtle”을 찾아보면 도금양이나 소귀나무로 번역되고 있기 때문에 일면 타당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르투스와 거리가 멀다. 나이더(Eugene A. Nida)와 테이버(Charles R. Taber)의 번역에 관한 내용동등성 이론[52]에 의하면 원언어의 메시지가 가장 가깝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성경과 일본성경의 번역 사례를 통해서 미르투스(**מִרְטוּס** hádas)를 번역한다면 ‘천리향’의 한국 명칭인 ‘서향’이 그래도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성경에서 ‘도금양’이나 은매화(銀梅)를 쓰지 않고 ‘미르투스(ミルトス)’를 쓰고 있음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번역에 관한 내용동등성 이론에 의하면 미르투스(**מִרְטוּס** hádas)는 히브리어인 hadas를 사용하는 방안, 학명인 미르투스(*Myrtus*)를 사용하는 방안, 한국의 수목 가운데 가장 가까운 서향을 사용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hadas는 의미 전달성이 약하기 때문에, 서향은 의미 전달성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명인 미르투스(*Myrtus*)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논리의 타당성은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일본성경이 1955년부터 hadas를 ‘미르투스(ミルトス)’로 번역하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 IV. 요약 및 결론

도금양나무(*Myrtus communis*)의 올바른 명칭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 식물생태학적인 특성 분석을 통해 유사종을 구분하기 위한 근거를 찾았고, 도금양나무에 대한 고대 국가별 상징성과 활용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도금양나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나무이기 때문에 한중일 성경 번역사에 나타난 도금양의 명칭 변화에 대해 총 21종의 성경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미르투스(*Myrtus communis*)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유다, 그리스, 고대 로마, 중세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부활을 상징하는 중요한 수목이었으며 열매와 잎, 그리고 꽃에서 나는 향기에 의해 생울타리로 쓰이거나 정유하여 약재로 쓰였다.

2. 성경에서 미르투스(*Myrtus communis*)는 초막절에 초막을 만드는데 사용되거나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할 때 사용되던 나무다. 미르투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이고, 평화와 감사의 상징이기도하며, 또한 불멸성과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로 나타난다.

3. 한중일 성경 번역사에 나타난 중요 성경을 분석해 본 결과, 미르투스(**מִרְטוּס** hádas)를 자국에 맞도록 번역하기 위해서 시기별로 崗拈樹(강념수 千里香), 千里香(천리향), 鳥拈(조념), 番石榴(번석류), 감탕나무, 석류나무, 화석류, 소귀나무, 도금양나무 등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4. 2017년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myrtle’을 ‘桃金娘’으로 번역한 것은 일본의 사전 『熟語本位 英和中辭典(1915)』과 전문서적 『聖書植物考(1920)』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번역 방식이 해방 후 『영한사전(1949)』을 출간하면서 일본의 사전을 여과없이 그대로 참고하여 나타난 오류로 판단된다.

5. 일본에서는 *Myrtus communis*라는 식물이 없기 때문에 이 수목을 쓸 때에는 ‘桃金娘’이라고 쓰고 읽을 때에는 ‘てんにんくわ(天人花)’로 읽었다. 따라서 “천인화(텐닌카)”는 “도금양”의 또 다른 일본식 번역인 셈이다. 따라서 스페인 알함브라궁의 알베르카(Alberca) 중정을 ‘천인화의 중정’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완전한 오류다. 마찬가지로 ‘도금양의 중정’도 일본식 번역이기 때문에 한국의 서적에서는 완전히 사라져야 할 용어라고 판단된다.

6. 번역에 관한 내용동등성 이론에 의하면 미르투스(**מִרְטוּס** hádas)는 히브리어인 hadas를 사용하는 방안, 학명인 미르투스(*Myrtus*)를 사용하는 방안, 한국의 수목 가운데 가장 가까운 서향을 사용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hadas는 의미 전달성이 약한 약점이 있고, 서향은 의미 전달성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명인 미르투스(*Myrtus*)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주 1) 피돈 하벤 (Pidyon haben פידון הבן)은 첫 번째로 태어난 남자 아이 (특히, 자연적으로 태어난 맏아들)를 대속하는 의식이다. “내가 이 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던 날,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 까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으로 성별하였다. 그것들은 나의 것이 된다. 나는 주님이다”(민수 3,12-13).
- 주 2) 참고문헌인 『성경(2005)』에서 ‘도금양’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원문에 충실하게 도금양이라고 표기하였다.
- 주 3) 모치노키(もちのき)의 학명은 Ilex integra로 감탕나무.
- 주 4) 도금양과 [Myrtaceae, 桃金娘科] (Doosan Encyclopedia).
- 주 5) <http://www.wildflowers.co.il/english/plant.asp?ID=87>

## REFERENCES

- [1] Jung Y. S.(1979), The history of landscape architecture, Myeongbomunhwasa: 74.
- [2] Cho Y. H. et al.(2013), Illustrated History of Landscape Design, Kimoonan: 30.
- [3] Choi J. H., Yoon S. J. and Go J. H.(2015), Plants in garden history, Daega: 99.
- [4]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2005), The history of landscape architecture, Munundang: 114.
- [5] Kim Y. K.(2009), Garden story, Taelimunhwasa: 93.
- [6] 馬禮遜, 米嶠(1823), 馬禮遜米嶠譯本 神天聖書, 大英聖書公會.
- [7] 郭實獵 外3(1840), 四人小組譯本 舊遺詔聖書, 由新嘉坡堅夏書院.
- [8] 裨治文, 克隄存(1863), 裨治文克隄存譯本 舊新約聖書, 美國聖經公會.
- [9] 施約瑟(1874), 天主版 舊約全書, 京都美華書院.
- [10] 文理和合譯本委員會(1919), 文理和合譯本 新舊約全書.
- [11] 香港聖經公會(1959), 和合本 舊新約全書, 香港聖經公會出版.
- [12] 雷永明(1968), 思高譯本 新舊約全書, 香港思高聖經學會.
- [13] 駱維仁 外3(1995), 現代中文譯本 聖經, 聯合聖經公會.
- [14] 裨治文, 克隄存 譯本(1863), 舊約全書 : 漢譯聖書, 美華書局.
- [15] ブリッジマン, カルバートソン, 松山高吉(1885), 訓点舊約全書, 米國聖書會社.
- [16] 聖書常置委員會(1904), 明治元譯 旧新約聖書, 米國聖書會社.
- [17] 旧約改譯委員會(1955), 口語譯 旧約聖書, 日本聖書協會.
- [18] 共同譯聖書實行委員會(1987), 新共同譯 聖書, 日本聖書協會.
- [19] Bible Translation Commission(1911), Korean Bible, Great Britain Bible Society.
- [20] 鄭泰容, 趙容圭(1926), 鮮漢文 貫珠 聖經全書, 大英聖書公會.
- [21] Chosun Kyungung Bible Society(1938), The Holy Bible Korean Revised Version, Chosun Kyungung Bible Society.
- [22] Korean Bible Society(1977), The Holy Bible Common Translation, Korean Bible Society.
- [23] Korean Bible Society(1993), The Holy Bible New Korean Standard Version, Korean Bible Society.
- [24] Korean Bible Society(1998), The Holy Bible New Korean Revised Version, Korean Bible Society.
- [25] Korean Bible Society(1999), The Holy Bible Common Translation Revised Edition, Korean Bible Society.
- [26] The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Biblical Commission (2005), The Holy Bible, Catholic Conference of Korea.
- [27] Lee C. B.(1994), Coloured flora of Korea, Hyangmunsa: 190.
- [28] Zohary, M.(1982), Plants of the Bib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9.
- [29] Israel Neot Kedumim park:
- [30] <http://www.neot-kedumim.org.il/?CategoryID=280&ArticleID=186&SearchParam=myrtle>
- [31] 中國植物志, <http://frps.eflora.cn/search>
- [32] Kim T. W.(2002), The woody plants of Korea, Kyohaksa: 408.
- [33] Lee C. B.(1979), Illustrated Flora of Korea, Hyangmunsa: 517.
- [34] 別所梅之助(1975), 聖書植物考, 有明書房: 254-257.
- [35] ウイリアム スミス, 藤本時男 編譯(2006), 聖書植物大辭典, 國書刊行會: 309-312.
- [36] Maureen Gallery Kovacs(1989), The Epic of Gilgamesh, Stanford University Press: 102.(Jo C. S.(2003), Sumerian mythology, Seohaemunjb: 228-230)
- [37] Wilkinson, A.(1998), The Garden in Ancient Egypt, The Rubicon Press: 49, 58.
- [38] Skinner, C. M.(1911), Myths and legends of flowers, trees, fruits, and plants, in all ages and in all climes, J. B. Lippincott company: 188-191.
- [39] Giesecke, A.(2014), The Mythology of Plants: Botanical Lore from Ancient Greece and Rome, J. Paul Getty Museum: 11-26..
- [40] Ballerini, L.(2012), A Feast of Weeds: A Literary Guide to Foraging and Cooking Wild Edible Plants, Univ of California Press: 108-114.
- [41] Myrtus Essential oil: <http://essentialoilsinformer.com>
- [42] The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Biblical Commission (2005), The Holy Bible, Catholic Conference of Korea.
- [43] E. W. Hengstenberg(1871-1875), Christology of the Old Testament III, T.&T. Clark: 309-312.
- [44] 中國科學院 華南植物園 [http://big5.cas.cn/kxcb/kpwz/201006/t20100601\\_2871813.shtml](http://big5.cas.cn/kxcb/kpwz/201006/t20100601_2871813.shtml)
- [45] 中國植物志: <http://frps.eflora.cn/search>
- [46] 齋藤秀三郎(1915), 熟語本位英和中辭典, 日英社: 828.
- [47] 別所梅之助(1975), 聖書植物考, 有明書房: 254-257.
- [48] Lew H. K.(1949), New Life English-Korean dictionary, Sungmunsa: 737.
- [49] 新村出 編(1955), 廣辭苑, 岩波書店.
- [50] Jung J. S.(2013), Plants of the Bible by Jung Jung-Sook, Christian Museum: 361-363.
- [51] Kim J. M.(1986), Plant of the Bible, Bojinje: 109.
- [52] 別所梅之助(1975), 聖書植物考, 有明書房: 251.
- [53] Lee D. C.(2010), The Theory and Practice of Bible Transl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master's thesis: 9.

원고 접수일: 2017년 4월 26일  
 심사일: 2017년 5월 29일 (1차)  
 : 2017년 6월 19일 (2차)  
 게재 확정일: 2017년 6월 20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